

“임란 충신 금남군 정충신 삶 그렸죠”

광주일보 기자 출신 이계홍 작가
금남군 일대기 대하소설 '깃발' 발간
'금남' 명칭 정충신 군호서 연유
이순신과 똑같이 충무공 시호 받아
"광주5·18, 6·10 항쟁 서사화 계획"



임진왜란에서 병자호란 이르는 국난에 나라를 지킨 광주 출신 금남군 정충신(1576-1636)을 모티브로 한 대하소설이 발간돼 눈길을 끈다. 옛 전남도청에서 유통 4거리를 일컫는 '금남' 도로명이 정충신의 군호인 금남군에서 연유할 만큼 그는 의향 광주를 대표하는 충신이다.

저자는 광주일보(옛 전남일보) 기자 출신 이계홍 작가. 이 작가가 최근 펴낸 '깃발' (전5권·범우사)은 임진왜란 당시 정충신 장군의 일대기를 그린 역사소설이다.

이 작가는 "정충신 장군 이야기를 우연한 자리에서 듣고 상당히 충격을 받았다. 평상시 역사에 관심이 있던 필자도 정충신 장군의 존재를 잘 몰랐다"며 "이순신 장군과 똑같이 충무공 시호를 받은 금남군 정충신에 대해 아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데 놀랐다"고 창작 배경을 말했다.

그러면서 "사료는 금성정씨 종친회가 보유하고 있는 세보 등 자료와 정환호 저 '금남군 충무공 정충신 전기'를 인용했다"며 "만우집을 비롯해 금남집, 조선왕조실록, 연려실기술, 호남지방 임진왜란 사료집 등을 활용했다"고 설명했다.

작품은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인조반정, 이괄의 난, 정묘호란, 병자호란에 걸친 정충신 장군의 파란만장한 일대기다. 정충신 장군은 한미한 집안

출신으로 만 16세에 무과에 급제했다. 그가 활약하던 시기는 선조-광해군-인조 대였으며 여타의 장수와 달리 시대모순을 헤쳐나간 개혁파로서의 삶을 살았다. 소설은 병사 출신 정충신이 2500리 길을 한달

음에 달려 의주로 피난 간 선조에게 장계를 올리는 것으로 시작된다. 임진왜란 때 이차-옹지 전투에서 승리로 이끈 광주목사이자 전라도체찰사인 권율이 쓴 승전 기록이었다. 장계에는 "권을 장군이 임진왜란 3대 육전 중 하나인 이차-옹지 전투에서 왜적을 무찔러 국창지대 호남을 지켰으니 삼감 마마는 도망가지 말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뒤이어 소설은 정유재란-인조반정-이괄의 난-안현전투-쌍령전투-정묘호란-병자호란까지 정충신이 무장으로서 전선의 복판에 있었던 이야기가 펼쳐진다.

작가는 익히 알려진 장수의 일대기가 아닌 역사상 묻혀 있는 정충신의 이야기를 발굴해 전개했다. 역사적 사료와 작가적 상상력 그리고 현장 취재를 통해 서사의 역동성을 살렸다.

그런데 왜 정충신이 많이 알려지지 않았을까. 작가는 "신분제 사회였던 조선조 사회에서 한미한 집안 출신이라는 한계 때문에 그의 활약상이 묻힌 측면이 있다. 주류 권력층에게 비주류로서 견제를 받은 점과 서민 계급 출신이라는 이유로 역사적으로 저평가됐다"고 분석했다.

작가는 30년 이상 언론계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뒤 '깃발'이라는 대작에 몰입했다. 특히 역사에 묻혀있던 인물을 호출해 그의 삶을 재현하는 데 진력했는데 이번 정충신 일대기도 그런 연장선의 일환이다.

향후 이 작가는 집필 계획에 대해 "구한말 망국의 이야기를 동학고도와 외세의 침투를 중심으로 그려나가고 아울러 민족의 수난기를 완성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작가는 1974년 월간문학 신인상을 통해 문단에 나왔으며 현재 '세종포스트' 주필을 맡고 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판소리·가야금병창·전통음식 배워요

전통문화관, 예술강좌 수강생 모집
3월16일~7월7일까지 15주 강좌

광주문화재단(대표 이사 황종년) 전통문화관이 '2021 상반기 전통문화예술강좌' 수강생을 모집한다. 이번 강좌는 광주시 무형문화재를 중심으로 강사진이 구성됐으며 대면과 비대면을 병행한다. 강좌는 3월 16일부터 7월 7일까지 매주 1회 총 15주에 걸쳐 진행된다. 전통음악 등 총 13개 강좌를 각 15회씩 운영한다.

먼저, 판소리 강좌는 민요 '몰래타령, 성주풀이', 판소리 '갈까부다, 신아리랑'을 배우는 시간이다. 강사는 초급반 박미정(시도무형문화재 제16호 판소리춘향가 전수조교), 중급반 방성춘(제16호 판소리춘향가 보유자), 이순자(제1호 남도판소리 보유자) 씨가 맡는다. 판소리고법 강좌는 '복장단' 등을 배우며 양신승(제11호 판소

리고법 전수조교) 씨가 강사로 나선다. 가야금병창 강좌는 민요 '호남가, 남원산성', '수궁가' 중 '화사자' 등을 익히며 이영애(제18호 가야금병창 보유자), 황승욱(제18호 가야금병창 보유자) 씨가 맡는다. '청소년 가야금병창'은 문명자(제18호 가야금병창 보유자) 씨가 '춘향가' 중 '사랑가'를 가르친다.

또한 전통음식 강좌는 '몸의 기운을 돋우는 보양식', '사찰음식' 등을 배우며 최영자(제17호 남도의례음식 보유자), 민경숙(제17호 남도의례음식 보유자) 씨가, 탕화 강좌는 송광무(제21호 탕화 보유자) 씨가 맡는다. 아울러 장구만들기 강좌는 장구 통칠 및 조립 등을 이복수(제12호 악기장 보유자) 씨가 강의한다.

수강생은 오는 3월 11일까지 선착순 12명씩 모집한다. 전통문화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전화 접수 가능하다. 수강료 5만원(재료비는 별도). 문의 062-670-8505. /박성천 기자 skypark@



문명자 가야금 병창 보유자의 강좌 장면.

광산새일센터, 경력단절 여성 직업교육훈련 참가자 모집

광주광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센터장 김선숙·이하 광산새일센터)는 결혼·출산·육아로 인해 경력단절 된 여성들을 지원하는 실무 중심의 직업교육훈련을 참가자를 모집한다.

직업교육훈련은 경력의 단절된 여성뿐만 아니라 현재 실업상태의 구직여성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3월부터 운영된다. 2021년 교육과정은 기업이 선호하는 실무중심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으로 4개의 과정으로 구성됐다.

'사회적경제기업사무원양성' (3월15일~6월1일)은 경리·회계행정 실무 및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이해 등 사회적경제기업 취업에 필요한 교육

과정이며, '돌봄보육전문가양성' (3월15일~4월9일)은 보육교사 및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들의 재취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CAD종합실무사무원양성' (3월22일~7월27일)은 기업의 사무업무 및 캐드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는 프로그램이며, '중소기업회계사무원양성' (4월12일~7월6일) 시간에는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경리·회계 실무와 ERP프로그램 활용 교육이 진행된다.

신청은 수업 시작 일주일 전까지 방문 또는 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하면 된다. 문의 062-457-5416.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문화재연구소, '문화재 보존처리' 동영상 콘텐츠 공개

창경루 자격루(국보 제229호), 고려청자 등 문화재 보존처리 과정을 직접 볼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 문화재보존과학센터는 '경이로운 문화재 보존처리'를 주제로 제작한 동영상 콘텐츠를 공개한다. 11월까지 매월 네 번째 목요일 문화재연구소 유튜브 채널에서 공개하는 이번 영상은 모두 10부로 구성돼 있다.

3월에는 '슬기로운 칠기생활'을 주제로 부산 낙민동 출토 빗 등을 토대로 목칠기문화재 보존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에피소드를 이야기식으로 소개한다. 이어 '시선 너머 들여다보는 우리 문화재이야

기' (4월), '현장출동! 칠백의총 순의비, 다시 응급수술을 받다' (5월), '보존과학자의 일상' (6월), '찾아가는 문화재 비파괴 조사 서비스' (7월), '전통책 표지는 어떻게 만들까?' (8월)가 펼쳐진다.

고려청자를 주제로 한 영상도 있다. 9월에는 '특별한 비밀을 간직한 고려청자'를 주제로 벨기에 왕립미술연구소 소장 한국도자기 보존처리 과정을 보여준다. 아울러 '일월수다라니주머니 보존처리하다' (10월), '보존처리로 자격루 제작기법과 제작자 찾아내' (11월)가 이어진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남광주에 깃든 정겨운 풍경과 역사의 아픔

고흥 출신 김용휴 시인 '남광주에 가리' 펴내

광주의 새벽을 여는 곳은 어디일까? 저마다 삶의 경험과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천차만별일 것이다. 그럼에도 이곳을 지목한다면 대체로 공감할 것 같다. 바로 '남광주'다.

남광주역이 폐역되기 전에는 새벽기차를 타고 순천, 고흥 등 남도에서 올라온 '할매'들이 신고은 생선과 과일, 푸성귀 등이 넘쳐났다. 누군가에게는 오랜 흑백 사진 같은 정겨운 풍경들로 남아 있을 테고, 누군가에게는 신선한 삶의 모습이 겹쳐질 것이다.

고흥 출신 김용휴 시인의 시집 '남광주에 가리' (솔아북스)에는 정겨운 광주의 풍경과 단상들이 담겨 있다. 그러나 풍경과 단상은 5·18의 아픔이 겹쳐지면 역사적 상흔으로 전이되기도 한다.

시인은 1975년 광주일보(옛 전남매일신문사) 직원으로 입사해 이후 5·18을 겪었고 83년 언론통폐합 여파로 퇴사를 한다. 이후 도서출판 규장

각을 설립해 월간 '어린이문학세계'를 17호까지 발행했다.

작품집은 5개의 장으로 구성돼 있다. '분노의 무등산', '내 고향 광주 무등산', '자연, 그리고', '사람, 그리고', '無知에서 思考로'는 다채로운 작품의 결을 선사한다.

시인에게 5·18은 "말만 들어도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자신의 사고를 통째로 바꾸어 놓는" 역사적인 사건이었다. 1장의 부제를 '분노의 무등산'이라고 정한 것은 그러한 연유다.

"새벽"의 절규라는 시는 마치 항쟁의 현장에 있는 듯한 작각을 준다. 5월 27일 새벽의 무점하면서도 참혹한 장면이 스치는 것 같다. "무아의 가슴에 파문 지듯/ 아스라한 기인 절규// 풍 북듯이

들려오는 총성/ 그때의 회피는 뒤늦은 죄인이 되었다"

그러나 3장과 4장은 자연과 고향 그리고 일상에 초점을 맞췄다. 세상을 바라보는 그의 눈빛은 풍경만큼이나 깊다.

"스치는 바람이라도/ 기적의 여운이라도/ 돌아오게 할 수 있다면/ 회상시켜 볼 수 있다면/ 광주의 아침을 여는/ 남광주에 나는 가리/ 삶의 질곡을 푸는/ 시골 할매들의/ 먼 숨결 소리라도 들으러"

표제시 '남광주에 나는 가리'는 남광주 새벽을 담담하게 그리고 있다. 지난 기억 속 남광주는 남도인들의 모습이자, 생생한 삶의 현장으로 복원된다. 옛 시간의 관조를 넘어 삶의 체온이 느껴지는 오늘의 모습으로 다가온다. 실제 시 '남광주에 나는 가리'는 남광주역 인근에 세워져 있다.

한편 김 시인은 95년 한백문화에 '백제인' 등으로 등단했으며 4·19혁명 호남역사편찬위원회 등을 역임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조합원님과 함께한 광주문화신탁 창립 27주년

광주대표 서민금융 협동조합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아파트담보대출

아파트 감정시세
최고 70~80%
추가신용대출 상담가능

담보대출

시세 **80%까지** < **법인 100억**
개인 50억 가능

각종 부동산담보(아파트, 주택, 상가, 빌딩, 대지, 전·답, 임야 등) 및 신축자금(시설자금) 등

상생협력대출금

사회적
경제기업

대출금리 2.28%

대출대상 (예비)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정부보증 햇살론대출

근로자 최대 1,500만원

(근로자 금액한도 기준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확대지원)

자영업자 최대 2,000만원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연선로 91번길 20-4 | ☎ 1644-7990 | ✉ cu08171@cu.co.kr

관인어촌 문흥본점 266-4150	자양어촌 양산지점 573-4150	관동어촌 운암지점 528-4150	매곡어촌 매곡지점 572-4150	첨단2지구 첨단지점 576-4150	운암산지점 운암산지점 513-4150	동광주지점 동광주지점 264-4150
-----------------------	-----------------------	-----------------------	-----------------------	------------------------	-------------------------	-------------------------